

제4회 고흥유자축제 내달 7~10일 열린다

축제장 '지상낙원'으로 구성
유자 향·색·맛·소리·감각 등
4개 주제 유토피아 공간 연출
유자밭 야간경관 조명 다채

다음달 국내 최대 유자 주산지인 고흥에서 유자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제4회 고흥유자축제가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고흥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11월! 고흥은 유자토피아'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장을 '지상낙원'으로 구성해 유자 향, 색, 맛, 소리, 감각 등을 주제로 한 4개의 유토피아 공간을 연출하게 된다. 이 공간은 지(地) - 유자밭, 상(嘗) - 먹거리, 낙(樂) - 공연, 원(園) - 힐링 동산으로 구성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KBC 개막식 축하공연, 드론쇼, 불꽃쇼, 유자 퍼레이드 등 화

려한 볼거리가 마련되며, 유자 테마파크, 향토음식관, 유자차 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유자밭 야간경관 조명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돼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 퍼레이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분리수거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축제 운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고흥 유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 상표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자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예술 작품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흥 유자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4회 고흥유자축제는

유자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고흥을 방문하여 유자의 향기를 가득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ob.song@jnilbo.com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990원
여수시, 근로자 1500여 명 적용

여수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9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710원보다 280원(2.61%) 오른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으로, 올해(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 20만 64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구례 in 낭만버스킹'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구례군에 낭만 버스킹이 찾아온다. K-ART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티스트들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과 청정하천 섬진강 등 자연이 만들어 낸 최고의 무대에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구례 in 낭만 버스킹'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구례군은 2022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음악회도 일환이다.

10월 3일 오후 4시 구례군 통합어울림센터(구례읍사무소) 앞 광장에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합동공연을 한 뒤, 구례군의 주요 명소에서 아티스트별 소규모 버스킹을 개최한다. 구례=김상현 기자



벼 수확에 앞서 지난 24일 화양면 백초마을에서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열어 한 해 작황을 평가·분석한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의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여수시 제공

광양시,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
'전남도지사 기관 표창' 수상

광양시는 지난 25일 전라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광양시가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 '전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과 민방위 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1975년 지역·직장대 발대식부터 매년 시·도에서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광양시는 전남도의 점검 및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직장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대원 편성과 훈련 운영 △실현 가능한 비상 대피 계획 및 급수 계획의 수립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일체 정비로 시인성 강화 △민방위·화생방 장비의 확충과 지속적인 시설 관리 등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분야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벼농사 종합평가회' 열어 1년 작황 분석

여수시장·단체장 등 260여 명 참석

여수시가 벼 수확에 앞서 지난 24일 화양면 백초마을에서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열어 한 해 작황을 평가·분석했다.

이날 평가회에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도의원, 농업인 등 26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회에서는 벼농사 작황 및 품종특성,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 등의 종합 평가가 이뤄졌으며 지역에

적합한 품종 선별을 위해 품종비교 시험포를 통한 신품종별 특성 등이 공유됐다.

지난 7-8월 전후 잎집무늬마름병과 잎도열병 등이 발생했고, 9월에는 벼멸구 밀도가 증가하면서 돌산·화양 등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앞서 시는 5-6월 벼 일판단지에 병해충 약제를 지원하고 7-8월 돌발벼해충 방제약제를 공급하는 등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힘을 쏟았다. 이에 따라 곧 수확을 앞둔

지금은 큰 피해 없이 생육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해 최근 5년간 쌀 생산량 중 올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명 시장은 "올여름이 유난히 더워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우리 시는 비교적 피해가 적어 다행"이라며 "농업인들이 땀 흘려 얻은 결실을 소득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2025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선정
순천시, 정부예산안 10억 확정

순천시는 지난 19일 산림청 주관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정부예산안 10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비 등 사업비 총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신대천 일원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룡면 신대천 일원(신대10차 ~ 삼산중학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방치된 하천 주변 생태계를 회복하고 신대지구 인근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이다.

시는 지역구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광양곡성구례을),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정부 예산안 반영에 최선을 다했으며 국회 예산확정 시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신대천 하천부지에 지역향토 수종과 미세먼지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2ha 규모 탄소저장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1.5km에 이르는 하천변 산책로 구축 및 정비 사업도 포함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도전! 청림골든벨' 퀴즈대회

공직자 청림 의식 강화

보성군은 지난 24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도전! 청림 골든벨' 서바이벌 퀴즈대회를 개최해 공직자 청림 의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도전! 청림 골든벨'은 참여형 교육으로 직원들의 반부패 법령과 청림 지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청림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청림 골든벨은 청림 상식 문제를 스마트 리모컨을 활용해 정답을 맞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35개 부서의 간부 공무원부터 신규 공무원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퀴즈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공직윤리 관련 법령과 일반상식으로 구성돼 출제됐다.

부서별 단체전과 개인전이 실시됐으

며, 퀴즈 참가자 외에도 응원석에서 부서별 현수막, 피켓 등으로 열린 응원전을 펼치며 호응을 더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이날 청림의 종은 문덕면 고은형 주무관이 울렸고, 부서별 단체전에서는 해양수산과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김철우 군수는 "청림 골든벨을 통해 직원들이 청림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지사,
육내배관 진단세척 시범 서비스

한국수자원공사장흥수도지사(지사장 정영달)와 장흥군 수도사업소는 장흥군 수도물 신뢰성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올해 '육내배관 진단세척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흥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 '장흥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상수도 운영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육내배관 진단세척 사업'을 포함·실시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수도 이용 고객의 수도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수도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장흥읍 지역 한빛맨션 등 100세대를 대상으로 '육내배관 진단세척'을 시행하고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진용 기자